

# 광운 신문 소식

광운,  
미래와 통(通)하다  
세상과 톡(Talk)하다

KWANGWOON NEWSLETTER | VOL. 112

소통의 힘을 가진 광운, 세상과 지역, 구성원과 함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01897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월계동)  
Tel 02-940-5114 | www.kw.ac.kr

KWANGWOON NEWSLETTER | VOL. 112

KWANGWOON NEWSLETTER | VOL. 112

SPRING 2019

“광운, 미래와 통(通)하다 세상과 톡(Talk)하다”



심기성 생활체육학과 15

SPRING 2019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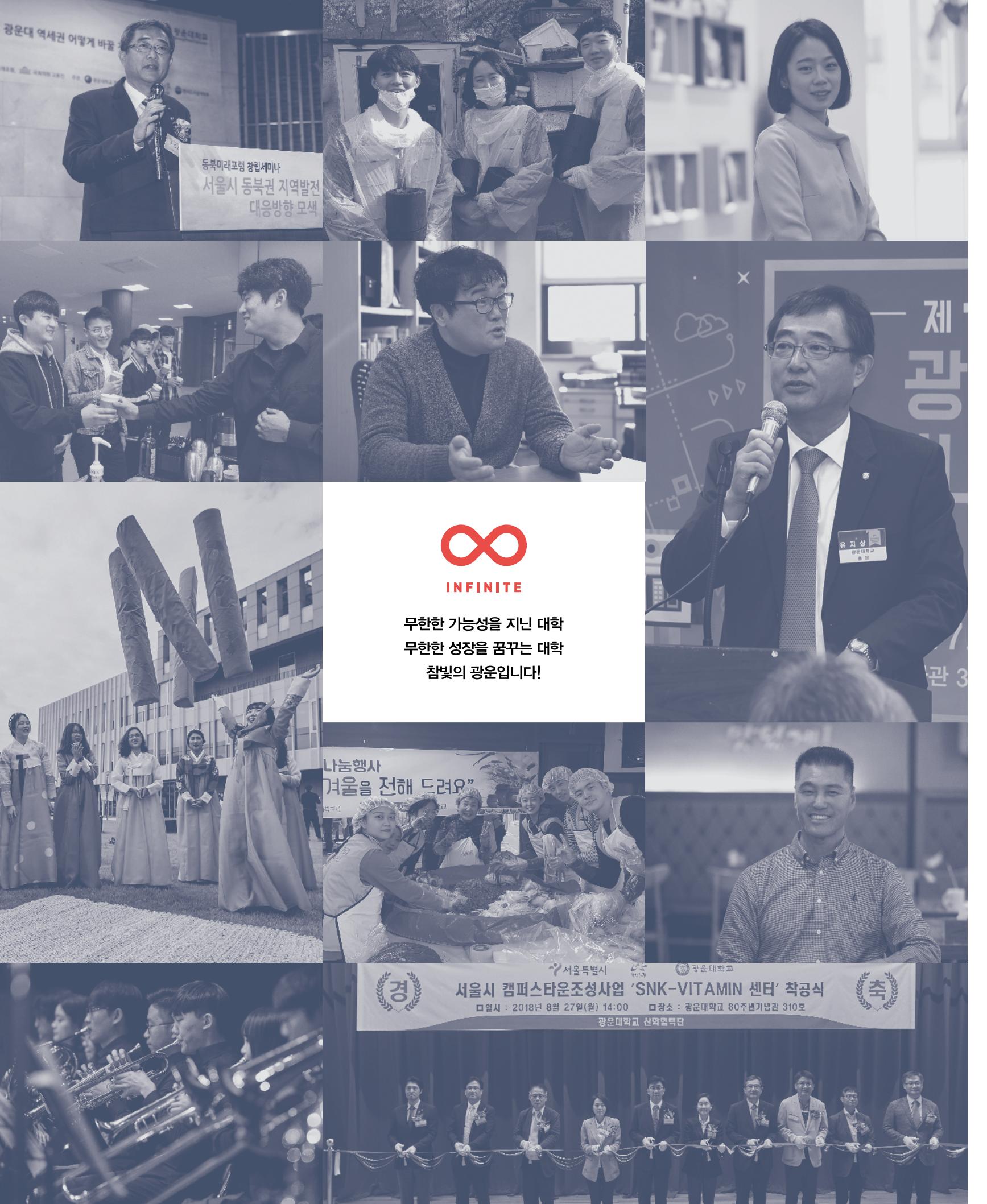


심기성 | 생활체육학과 15  
제2회 미스터광운 선발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심기성 학생

- 04 소통의 힘 2019년, 유지상 총장 신년사
- 06 광운 POWER 1 서울 동북부의 발전을 위한 <동북미래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 08 광운 POWER 2 광운대, 제7회 광운엔지니어링 페스티벌 개최
- 10 BANK 1 'SNK-VITAMIN 창업거점센터 착공식' 개최
- 12 BANK 2 광운대 캠퍼스에 올려 펴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 14 광운 PIONEER 제2회 미스터 광운 그랑프리 수상한 심기성 학생
- 16 광운 FRONTIER 인간과 기계가 상호협력 가능한 번역 프로그램 개발, 이일재 교수
- 18 GROUP 1 “따뜻한 사랑으로 추위를 녹여요” 광운대 사회봉사단 봉사활동 펼쳐
- 20 GROUP 2 “아메리카노에서 빛솔재나 한 잔 하실래요?” 생활관 무료 커피 · 쿠키 행사
- 22 EDUCATION 교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24 KW NEWS 교수 · 학생 동정 & 캠퍼스 소식
- 30 나눔 + 소액기부자 김보영 직원 & 고액기부자 이상진 대표
- 34 발전기금 안내
- 35 나눔캠페인

## 광운소식 2019 Vol.112

발행일 2019년 1월  
발행인 유지상  
편집인 김정권  
발행처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전화 02-940-5504~5  
팩스 02-940-5506  
주소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화도관 209-1호  
제작 승일미디어그룹 070-7416-4124





## 2019년, 기해년(己亥年) 모든 광운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발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운대학교 가족 여러분!

드디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은 소위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돼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저 설립니다. 즉 돼지를 본 누구나가 기쁨과 충만의 느낌이 드는지라 새해에 정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황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올 것 같으니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광운 가족들에게도 황금 돼지의 행운이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분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쌓여 온 시대의 복잡성과 혼돈성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희망의 수사학도 저출산 고령화에서 출발한 만성적인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이겨내기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당장 작년부터 심화된 경제적인 침체 분위기는 새해가 되어서도 쉽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춤하고 있을 우리가 아닙니다. 특히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광운을 빛내온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광운의 젊은 학생들이 기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광운 가족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해봅시다!”라고 모두가 외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결국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여러 교수님들과 구성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시한 ‘창의·융합·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이 미래 지향적 교육혁신을 지향하는 대학, 글로컬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대학,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고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대학이라는 핵심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크게 보면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광운 구성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어느 경우, 그동안 쌓여 왔던 먼지와 묵은 때를

지우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보다 나은 광운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열정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새해에 들면서, 약간의 실마리를 잡아 가면서, 앞서 제시한 비전과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통과한 제2주기 대학 평가에 대한 대처가 그것을 잘 증명할 것이지만 우리의 길은 너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기해년에 광운대학교는 더욱 더, 미래 지향적 교육혁신 모델을 구현하고, 진정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산학·창업 허브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우리 광운대학교가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국제화 역량 강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도전해볼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운 가족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 봅시다!

원래 돼지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묵묵히 희생만하는 아주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그런 미안함이 있기에 더욱 사랑받는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기해년에도 우리 광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서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총장인 저부터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찾아가서, 듣고 묻고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함께 풀어 가는 지혜, 정말 간절합니다. 그러면 황금 돼지띠의 행운이 광운 가족 여러분들께 꼭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도 항상 댁내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운 가족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광운대학교 총장

**유지상**



## 서울 동북부의 발전을 위한 <동북미래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광운대역세권사업 현황 점검 및 정책대안 마련 등 현안 논의

광운대는 동북미래포럼 창립세미나 '서울시 동북권 지역 발전 이슈와 대응방안 모색 : 광운대 역세권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지난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광운대 새빛관 대강의실에서 개최했다. 동북미래포럼은 서울 동북권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구와 대학, 학술단체,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여 지역 발전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이날 창립세미나에서는 광운대역세권사업 현황 점검 및 정책대안 마련 등 현안이 논의되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동북미래포럼 창립세미나는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노원갑)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고용진 국회의원은 "동북미래포럼은 낙후한 서울 동북권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안 이슈와 잠재력을 점검하고 발전전략을 공유하고자 결성되었다"며 "동북미래포럼을 통해 서울 동북권 발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고민하고 공공용지 개발을 통한 공익성 강화와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운대 유지상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공공부문과 학술연구를 담당하는 대학, 실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융합적 학술세미나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동북미래포럼' 창립세미나가 생산적 정책토론의 자리가 되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축사에서 "노원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혁신기업 육성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공감행정으로 노원구가 동북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창립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태원 교수(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동북권 지역 발전의 현안 이슈와 잠재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어 이정식 노원구 미래도시과장이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노원구의 미래도시

방향'을,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김기우 서울시캠퍼스타운조성단 팀장이 '서울형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경과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두 번째 토론에서는 박진성 코레일역세권개발처장이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영환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진성 코레일 역세권개발처장, 박태원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장, 오한아 서울시의회 의원,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 이정식 노원구청 미래도시과장, 김기우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단 팀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관심을 반영한 듯 수백 명의 지역 주민 및 관계자가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동북미래포럼은 서울 동북권 발전을 위해 자치구와 대학, 학술단체,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여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광운대 유지상 총장이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용진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창립세미나를 시작으로 향후 주변 기관장, 전문가,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광운대, 제7회 광운엔지니어링 페스티벌 개최

300여 명의 공학도 참가… 작품 전시 및 경진대회 개최

다양한 공학 경진대회를 한 자리에 모아 공학도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광운대 2018 제7회 광운엔지니어링 페스티벌」이 2018년 9월 17일(월)과 18일(화) 양일에 걸쳐 열렸다. 광운엔지니어링 페스티벌은 공학교육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비(非)공학계열 학생들과의 다학제 간 융합형 창의활동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사로, 광운대 공학도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광운엔지니어링 페스티벌은 '제7기 학생창업회사 MEC 시제품 전시회'와 '2018 MY(Multi-Y) 캡스톤 디자인 전시 및 경진대회', '2018 Design Thinking & TRIZ 전시 및 경진대회', '제7회 창의 융합 소프트웨어 전시 및 경진대회', '제2회 IOT스마트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등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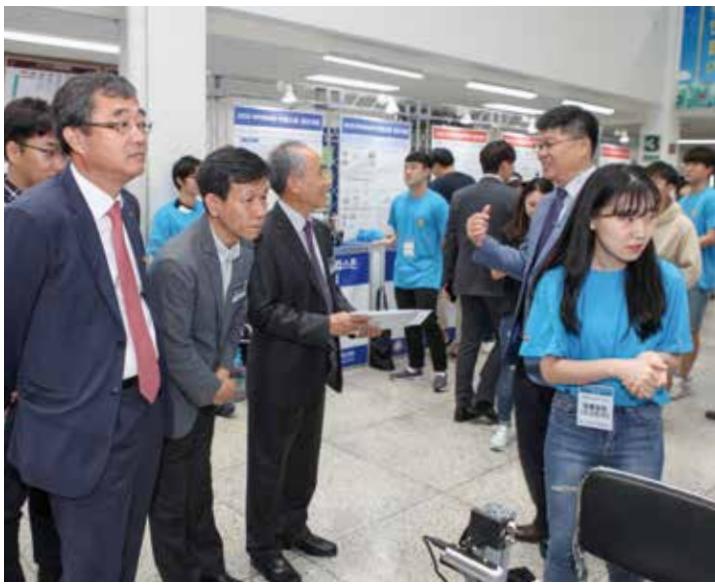
개막식에는 광운대 유지상 총장을 비롯하여 한정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서울과학기술대 주원종 거점센터장, 김대철 광운대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세계 최초의 대학생 로봇게임단 광운대 로빛(Ro:bit)의 축하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또한 연계 행사로 총동문회가 주관한 '선배와의 만남'과 '광운 Dream, MATLAB학습지원 컨설팅', (주)력스로보의 '모디(MODI)' 시연 등이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으며,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경진대회도 함께 개최되었다.

제6회 창보투(창업보육투자유치) 경연회는 올해의 창업투자유치금을 획득하기 위한 창업투자경진대회로, 동문 기업인 및 외부산업체 초청 심사 및 청중평가단(재학생) 심사로 진행되는 대회다. 학생창업 경진 대회는 스타벅스 창업카페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스타벅스-서울 5개 대학이 함께한 창업카페 우수 결과물을 전시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품을 선발한다. 올해에는 총 6개의 팀이 경쟁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민상원 광운대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광운엔지니어링 페스티벌은 광운의 공학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를 통해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며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비전과 창의를 앞세운 공학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광운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공학교육 분야의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학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요 중심·성과 중심의 교육과정 및 졸업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질 개선 체계(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운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SNK-VITAMIN 창업거점센터 착공식' 개최

### 서울 동북부 창업허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기대

광운대가 지역 내 창업허브 플랫폼으로서 첫 닻을 올렸다. 광운대는 서울시, 노원구와 공동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SNK-VITAMIN 창업거점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청년과 지역주민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될 'SNK-VITAMIN 창업거점센터' 착공식 현장의 모습을 담아봤다.



2018년 8월 27일(월) 오후 2시, 광운대 80주년기념관에서는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유지상 광운대 총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등이 자리한 가운데 'SNK-VITAMIN 창업거점센터 착공식'이 개최됐다.

SNK-VITAMIN 창업거점센터(이하 '비타민센터') 건립은 광운대가 학교 밖 대학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민(民)-관(官)-학(學) 연계·추진 사업이다. 비타민센터는 월계동 447-2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17㎡, 지상 3층 규모다.

1층에는 세미나실 및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2층에는 3D 프린터 제작 및 실습실, 3층에는 초기창업기업 보육실 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청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부터 전문적인 투자유치, 시제품 생산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지난 2017년 10월 광운대역사 3층에 개소한 SNK-스타트업 스테이션 및 공릉동 서울창업디딤터, 광운대 학생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서울 동북부 창업허브 생태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SNK-스타트업 스테이션에서는 9개 창업팀이 입주하고 있으며, 비타민센터가 조성되면 더 많은 창업팀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착공식에서 유지상 총장은 "비타민센터는 서울 동북부 창업허브 플랫폼의 하나로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이 아이디어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해 서로 자유롭게 만나는 네트워킹 공간으로 건축될 예정"이라며 "광운대는 서울 동북부 창업 활성화를 주도하는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자유로운 창업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시작한 광운대 캠퍼스타운 사업은 학교의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창업·취업 기회 발굴, 대학을 통한 지역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창업 문화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광운대 캠퍼스에 울려 퍼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

2018년 10월 31일 오후 7시,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서 음악회 개최

가을밤을 한층 아름답게 꾸며주는 클래식음악회가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지난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7시에 개최됐다. 'KW 클래식 사랑의 감성의 켜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클래식음악회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클래식음악들이 연주되어 관객들에게 감미로운 가을밤을 선사했다.



다카포(DaKAPO) - 광운대학교가 함께하는 공동음악회  
'KW 클래식 사랑의 음악을 켜다'



이날 클래식음악회에는 광운대 교직원, 학생 및 외국인 학생,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더욱 풍성한 자리를 만들었다. 첫 곡은 광운대학교 대학생 아마추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 다카포(DaKAPO, 회장 강자수)의 연주로 진행되었다.

다카포(DaKAPO)는 악상기호 D.C.로 악기하여 '처음부터 다시'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광운 아마추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악자인 카포(KAPO)를 합성해 '초심을 잊지 말고 연주에 임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카포는 프로그램 1부에서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과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조곡 1·2번', 2부에서는 루드비히 반 베트벤의 '교향곡 5번 C단조(Op. 67)'를 선보여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양코르곡으로 '오페라의 유령'과 대중적으로 친숙한 린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별의 비행', 요하네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등을 매력으로 연주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클래식음악회에서는 광운대에 발전기금을 낸 기부자들을 초청하여 'KW-파트너 광운대학교 교직원 기부자 감사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공연 전 사전행사로 준비된 감사행사에서 유자상 총장은 "학교를 위한 마음으로 시작된 작은 정성들이 광운의 발전을 이끌어갈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10월의 마지막 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따뜻한 음악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어깨를 맞대고 광운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행사를 마친 후에는 클래식음악회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2회 미스터 광운 그랑프리 수상한 심기성 학생

## “내 · 외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희망사항이자 꼭 필요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광운대에서는 ‘제2회 미스터 광운’ 선발대회가 개최됐다. 생활체육을 전공하는 심기성 학생은 육체미, 균형미, 자연미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그를 만나 건강한 신체에 대한 생각과 학교생활에 대해 들어봤다.

**심/기/성**

생활체육학과 15



Q.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2회 미스터 광운 선발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셨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운동 경력과 몸 상태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역량 내에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 전에 선배들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했던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부족한 능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심사위원 박석 교수님, 이옥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회 준비는 어떻게 했나요?**

언제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신체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수상에는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처음 개최된 ‘제1회 미스터 광운’ 출전 경험을 토대로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 기술, 개인 기록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는 운동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Q. 대회에 출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그랑프리에 이름이 호명된 후 무대로 나가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2년 전 운동 중 어깨 부상을 당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자존감도 낮아지며 방황을 했습니다. 다행히 선배들의 도움으로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랑프리로 호명되었을 때의 감격이 남달랐습니다.

Q. 곧 졸업인데 진로는 결정했나요?

외적인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람을 내 · 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 학군장교로 임관하는데, 복무 기간에도 초심을 잊지 않고 이론과 실기를 모두 발전시켜 사회에 나왔을 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Q. 건강한 몸 만들기는 모두의 희망사항인데 좋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습관’입니다.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있긴 하지만 자칫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부상의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공인받은 정보 매체를 통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외관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초체력을 우선적으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학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학과는 체육전공답게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습니다. 훈련 접할 수 있는 축구와 같은 실기종목부터 윈드서핑, 스쿠버다이빙과 같이 특색이 있는 실기 종목을 수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이 밝은 노인복지 관련 체육 분야와 피트니스 분야, 특수체육을 주로 배웁니다. 그 중 제가 속해있는 ‘AMAR’라는 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생활체육학과 내 소모임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졸업한 선배들과 연세대 물리치료학과 출신들이 함께하는 팀으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운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대상에게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인 팀이기에 제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 “인간과 기계가 상호협력 가능한 번역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 설 것”

영어산업학과 이일재 교수는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창립 제47주년 및 세계번역의 날 기념식’에서 ‘제5회 한국번역대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기반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번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이에 이일재 교수를 만나 기계번역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번역산업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일/재

영어산업학과교수



**Q. 인공지능 및 딥러닝 기반 기계번역 프로그램은 낯선 개념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구글,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번역과 관련해서는 단어, 절 등 이미 번역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으며 성주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한국어를 번역한다면, 목표어인 영어는 이미 단어 또는 숙어로 되어 있어 단어에 맞게 자동으로 적절한 번역을 해줍니다. ‘Apple’와 ‘Apology’로 말이죠. 물론 신조어, 동음이의어 등은 데이터가 부족하니 비슷한 단어로 이해하는 오류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포스트에디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필요합니다.

**Q. 포스터에디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현재 포스트에디터는 기계가 1차로 번역한 날 것의 글을 원문과 대조해 편집하고 교열합니다. 또한 번역을 하기 앞서 긴 문장을 짧게 잘라 기계가 적절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번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단어를 기계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아울러 원문 표현이 문법에 맞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번역방식은 번역시간을 50%에서 70%까지 단축시킵니다.

**Q. 개발하신 기계번역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번역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공대에서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기계번역을 하고 포스터에디터가 높임말, 낮춤말, 띄어쓰기, 틀린 단어 등을 검수·수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한영번역을 할 시 사전에 한국어 원문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축약어 등을 처리한 후 기계번역을 하도록 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Q. 번역교과목에서도 기계번역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시나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후로 기계번역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기존 번역에서 포스트에디팅을 컴퓨터에서 하는 실습도 포함했습니다. 결과 많은 학생들이 자기 등록금을 벌면서 파트타임 포스트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면 포스트에디터의 역할을 축소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여 수정·검토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고, 특히 번역품질관리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즉, EU 및 일본, 중국에는 있는 번역청이 우리나라에도 만들 어질 때 필요한 프로그램과 공정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쪽 정도의 번역을 생산 공정 과정을 연구하는데, 일관된 품질과 일반 번역가보다 정확하고 섬세한 검토·수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 협력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따뜻한 사랑으로 추위를 녹여요”

### 광운대 사회봉사단, 취약계층 대상으로 봉사활동 펼쳐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을 더욱 춥고 힘들게 보내는 이들이 있다. 광운대 사회봉사단은 상계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따뜻한 손길과 밝은 웃음이 가득했던 봉사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매일 아침 늦가을의 추위가 매서움을 더하던 지난 2018년 11월 10일 (토), 광운대 사회봉사단(단장 박철환)과 홍보대사 비마랑은 상계 3, 4동 인근 지역의 저소득 어르신 14세대에 총 3,670장의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또한 2018년 11월 17일(토)에는 상계동 일대의 가계곤란 가구 160세대에 각각 김장김치 5kg을 전달했다. 전달한 김장김치는 사회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배추를 절이고 김치 속을 만들어 담근 것으로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겨 더욱 의미를 더했다.

사회봉사단 회장을 맡고 있는 양현준 학생(전기공학과 15학번)은 “연탄을 나르면서 조금 힘이 들긴 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고구마, 요구르트 등의 간식도챙겨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광운대와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준비한 연탄과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운대 사회봉사단은 지난 2009년 12월 창단 이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인근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 교육봉사, 독거노인 말벗 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배급, 노원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주거환경 개선, 김장 나눔 봉사 등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에서 동아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운대 사회봉사단 단원들은 특별한 보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단원들은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광운대의 명예와 신뢰를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아메리카노에서 빛솔재나 한 잔 하실래요?”

## 생활관, 입주생 대상으로 커피와 쿠키 무료 제공

학업에 열중하느라 피곤한 학생들에게 아메리카노와 달콤한 쿠키는 컨디션을 순식간에 올려주는 묘약과도 같다. 광운대 생활관(공공기숙사 빛솔재)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수), 입주생들을 대상으로 아메리카노와 쿠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해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자 작은 이벤트를 연 것이다.



2학기 중간고사를 맞아 학생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된 ‘아메리카노에서 빛솔재나 한잔?’ 행사가 진행된 생활관 로비에는 500여명의 생활관 입주생들로 가득 찼다. 생활관 운영팀이 입주생들을 위해 쌈싸름하면서도 고소한 아메리카노와 달콤한 쿠키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무료로 제공 받은 아메리카노와 쿠키를 먹으며 중간고사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어 밝은 표정이었다.

특히 이번 커피와 쿠키 무료 제공 행사의 행사명인 ‘아메리카노에서 빛솔재나 한 잔?’은 생활관 총장들이 아이디어를 낸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여 운영팀과 입주생들이 함께 만든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한편, 광운대 생활관은 정부의 대학생 주거안정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행복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9월 개관하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낮은 금리의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대학생 거주여건 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월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월 24만원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면적 19,921.7㎡, 지하 3층과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어 491실, 총 977명 수용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체력 단련실, 세탁실, 편의점, 카페 등이 마련되어 있다. 사생실 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등도 갖춰져 있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생활관 운영팀 박영환 팀장은 “생활관 운영팀에서는 입주한 학생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주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유학생들 여기 모여라~!

교내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꿈을 갖고 광운대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과 동시에 학업에도 열중해야 한다. 특히 고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외롭고 힘든 마음이 들기 마련일 터. 이에 광운대에서는 교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과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총장님과 함께하는 2018년 추석맞이 체험 행사

지난 2018년 9월 19일(수) 오전 11시 학내 광운스퀘어 잔디밭에서는 광운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2018년 추석맞이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본 행사는 유지상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명절에도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독일,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베트남, 대만, 일본 등에서 온 30여 명의 학생들로, 색색의 전통한복을 입고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의 전통놀이를 즐겼다. 또한 행사 후에는 유지상 총장이 직접 나눠준 송편, 전, 약과, 식혜 등의 추석음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지상 총장은 "나라마다 명절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나눔 문화와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차현기(22세, 영어영문 학과)는 "유학 생활 중 첫 명절을 앞두고 한국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애정은 물론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 외국인유학생 ALL CARE 프로그램, '런치톡톡(Talk Talk)' 열려

지난 2018년 12월 13일(목)에는 유지상 총장과 외국인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런치톡톡(Talk Talk)'을 열었다. '런치톡톡'은 『광운대 유학생 ALL CAR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활한 유학생 활동과 한 국 정착에 도움을 주고, 유학생 담당자와 외국인 유학생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2018년 9월 첫 '런치톡톡'이 열린 이후, 총 50회에 걸쳐 144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한 인기 프로그램이다.

베트남 유학생 이반홍(전자융합 1학년)은 "처음 유학을 왔을 때는 낯선 환경에 불편한 점이 많고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국제교류팀 직원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 해결해주시고자 노력해서 참 감사했다"고 말했다.

중국 유학생 관미이(국어국문 4학년)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의 관심"이라며 "지난 3년간 국제교류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외국인 유학생들과 가감 없이 대화를 나눈 유지상 총장은 "우리 대학에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래의 글로벌 광운 홍보대사'이며 '성공적인 유학생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광운대를 믿고 즐거운 유생생활을 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광 / 운 / 동 / 정

**01** 광운대 - (주)마노조경설계사무소와 VR영상 기탁 및 MOU 체결



광운대학교와 (주)마노조경설계사무소는 2018년 9월 5일(수) 오후 3시 광운대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영상 기탁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양 기관은 ▲산학협력 사업의 협력 및 지원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공유 및 인적교류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광운대는 VR로 촬영된 영상을 광운대 홈페이지를 통해 VR 서비스로 제공함과 동시에 유학생 모집과 해외 교류대학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02** 광운대, TG교육그룹과 빅데이터 교육분야 산학협력 체결



광운대 국가인적자원개발센터는 (주)TG교육그룹과 지난 2018년 9월 28일(금) 빅데이터 학습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사업 운영기관인 광운대와 협약을 맺은 (주)TG교육그룹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에게 맞는 공부 환경을 제공해 학습자를 자습 지원 시스템을 보유 중이다. 양 측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빅데이터와 관련해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현업 전문가 특강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03** 영어영문학과 - (주)에버트란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산학협력' 체결



영어영문학과(학과장 김선웅 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24일(수) 국내 번역전문업체와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주)에버트란으로 본 협약을 통해 'AI 기계번역과 번역산업 관련 연구'를 위해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들에게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약 4명의 대학원생들에게 4학기 동안의 학비를 지원하게 되며, 장학금은 교수연구 장학금 50%와 산업체 학자금 지원 25~50%를 합쳐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07** 기해년 신년하례식 개최 "대학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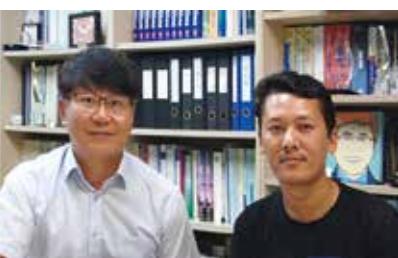
지난 2019년 1월 2일(수) 기해년 새해를 맞아 본교 동해문화예술관 소극장에서는 유정호 기획처장의 사회로 신년하례식이 개최됐다. 조선영 이사장, 유지상 총장의 새해 신년사, 노정진 교수의 축하 공연 등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교직원들과 김대철 총동문회장, 문동찬, 김정욱, 김순협, 최기호, 윤윤석, 노삼규, 박상열 명예 교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09** 백지은 학생,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광운대 교육학과(상담교육전공) 박사과정 백지은 학생(사진 좌측)이 '근로환경의 상호작용 공정성 수준이 업무스트레스 및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에 미치는 효과 연구'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근로환경조사 논문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백지은 학생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직장인 스트레스에 있어 상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공정한 대우 등 양질의 관계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직무스트레스의 긍정적 영향력에 주목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 박재영 교수 웨어러블 고출력 자가발전 전원기술 개발 성공



박재영 교수 연구팀(전자공학과)은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나노구조, 3D프린터로 제작한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レン) 및 PLA 구조물과 FeSiCr/PDMS 자속 접촉 유연 복합소재를 이용해 팔찌 모양의 인체동력 기반 고출력 웨어러블 하이브리드(전자기력·마찰전기력) 에너지 수확 기술을 개발했다. 전자기력과 마찰전기력 에너지 수확소자에서 각각 4.98mW, 0.093qW의 높은 평균전력을 출력했으며, 팔을 가볍게 흔드는 움직임만으로도 손쉽게 동작과 134개의 상용 LED 전구를 밝히는데 성공했다.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연구 전문저널인 엘시비어(Elsevier) 출판의 Nano Energy 2018년 8월 27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04** 서울시 시립노원청소년직업 체험센터 위탁 운영단체 선정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가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위탁 운영단체로 선정되었다.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차세대 산업 체험을 위해 노원구 혁성여고 인접 부지에 건립 중인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99㎡의 청소년 특화시설로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다. 본 센터는 청소년들의 체험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처하여 미래 유망 직업군과 연계된 교육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05**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연 서울지역협회 우수과제전시회 개최



전자공학과 박재영 교수(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센터장)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산학연 서울지역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9일(금) 오후 3시 본교 80주년기념관 310호에서 서울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2018년 산학연 학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조사전문업체인 글로벌리서치, 한경 캠퍼스 잡앤조이와 공동으로 대학별 취업·창업 역량 평가를 시작했으며, 4년제 대학 162개와 전문대 133개 등 국내 대학 전체를 망라했다.

**06** 광운대, '한국경제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 평가' 유치취업률 2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한경 대학 취업·창업 역량 평가'에서 광운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졸업생 규모별 순위(졸업생 2000명 이상~3000명 미만)의 유치취업률 부문에서 2위를, 취업률은 15위를 차지한 것이다. 종합순위는 전국 20위를 기록했으며 창업공간 부문에서는 전국대학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조사전문업체인 글로벌리서치, 한경 캠퍼스 잡앤조이와 공동으로 대학별 취업·창업 역량 평가를 시작했으며, 4년제 대학 162개와 전문대 133개 등 국내 대학 전체를 망라했다.

**08** 직원퇴직자모임 송년회 개최 및 발전기금 기탁



광운대 직원퇴직자모임(이하 광운포럼)은 2018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광운대 총무처장, 관리처장, 총무과장, 과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선후배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광운포럼에서는 광운대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

**11** 심준섭 교수, Lab on a chip 저널 Cover 선정



심준섭 교수 연구팀(전자융합공학과)은 다양한 시약을 반응시켜 심혈관 질환을 현장에서 즉석으로 진단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시간과 순서에 따라 시약을 제어할 수 있는 일회용 바이오칩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된 바이오칩은 미세가공된 플라스틱 기판과 고무 패턴을 이용해 한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저기에 제작 가능하다. 또한 개발된 소자는 복잡한 면역반응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에 적용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검사결과가 나오도록 구현됐다. 연구 결과는 Royal Society of Chemistry 출판사의 Lab on a chip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으며, 개발된 프로그래밍 가능한 바이오칩은 특히 등록까지 완료했다.

**12** 이종철 교수, 산학연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이종철 교수(전자융합공학과)가 2018년 8월 30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9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그 간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중소기업 기술혁신 산학연 유공자 부문에서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종철 교수는 무선 통신 분야의 부품 및 시스템 분야에서 다수의 산학협력 R&D에 과제책임자로 참여했으며 산업체 재교육, 중소기업 기술지도 등 활발한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2015년도에 (주)에드모텍(제작명: UHF 대광역 아이슬레이터 개발)과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해 성공 판정 및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성공으로 해외 수출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했다.

## 광 / 운 / 성 / 과

**13** 로봇게임단 로빛(Ro:Bit),  
2018 국제로봇콘테스트를 휩쓸다!



광운대 로봇게임단 로빛(RO:BIT)은 지난 2018년 10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대회 '국제로봇콘테스트(International Robot Contest : IRC)'에서 3개 부문 총 8개의 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11개 대회 32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9개국 약 2,700명이 참가해 다양한 대회에서 우열을 가렸다. 이 중 로빛(RO:BIT)은 지능형 휴머노이드 육상 부문과 씨름 로봇 부문, 드론 퍼포먼스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14** 영어영문학과 이일재 교수,  
(사)한국번역가협회 번역대상 수상



영어영문학과 이일재 교수(사진 좌측)가 지난 2018년 10월 5일(금)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 '칭립 제47주년 및 세계번역의 날 기념식'에서 '제5회 한국번역대상'을 수상했다. 미시건주립대학 언어학 박사인 이일재 교수는 인공지능(AI) 및 딥러닝 기반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한 번역산업의 발전 및 디국어 번역능력 향상을 위한 번역 교육과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 교수는 "인간이 최적의 번역가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며 대량 또는 디국어로 번역해야 할 경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기술적인 도움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며 "언어교육 정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형 인재의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나부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6** 김태규·이진규 학생, 한국IT 서비스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17** '요리중독'팀, 제3회 IoT 이노베이션챌린  
지 장려상 수상



김태규·이진규 학생(대학원 경영정보학과)이 사단법인 한국IT서비스학회가 주최하는 2018년 한국IT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지도교수는 조자희 교수(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정보융합학부)다. 수상 논문은 '위치기반 트위터 데이터를 이용한 도심권 추정과 인구의 공간분포 분석'으로, 위치기반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해 두 도시의 도심권을 추정하고 사람의 공간분포를 비교·분석했다. 김태규 학생은 "연구의 실무적인 시사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좋은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광 / 운 / 성 / 과

**15** 서반우 교수, '2018 서울명예시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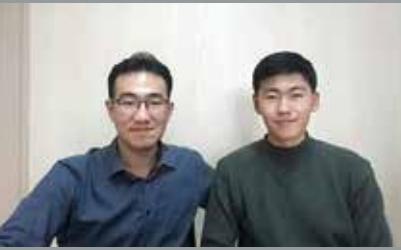
서반우 교수(Prof. Bhanu Shrestha, 광운한림원, 사진 좌측)가 서울시(시장 박원순, 사진 우측)로부터 '2018 서울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2018년 11월 15일 '외국인 명예시민의 날 6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를 빛낸 외국인 22명을 '외국인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서 교수는 한-네팔 친선협회의 회장으로 한국-네팔의 문화 교류 및 문화 활동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에는 성북구청에서 선정하는 '명예구민'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전자공학 분야 교수로 다수의 국제논문 등재 및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

**19** 이홍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위원회 위원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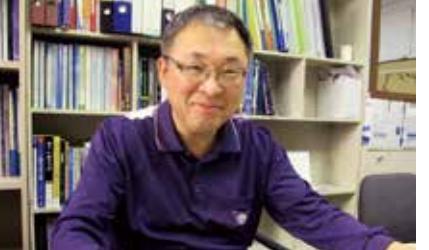
경영대학 이홍 교수(전자융합공학과)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위원회(기업구조조정) 위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위원회는 경영환경이나 구조적 이유로 어려워지고 있는 기업에게 사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기업 활력을 돋는 위원회다. 기업활력법에 의해 만들어진 위원회로서 기업의 구조조정 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홍 교수는 "기업활력법의 명칭 그대로 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며 "기업들을 볼 때, 소유주만 보지 말고 해당 기업의 종업원과 산업 생태계까지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 심준섭 교수 연구,  
유명 해외저널 표지논문 선정



심준섭 교수 연구팀(전자융합공학과)이 금속에 가까운 전도성을 갖는 고무 전극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개발된 고무 전극으로 도마뱀 발바닥에 있는 미세한 섬모 구조의 패턴을 제작했고 이를 이용해 심전도 생체 신호를 측정한 결과, 기존 전극 대비 높은 신호가 측정됨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는 2018년 10월 24일(수), Advance Functional Materials 저널(SCI, Impact Factor: 13.325, JCR 상위 4% 이내)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21** 김태균 교수, Symmetry-Basel 저널  
편집위원 위촉



김태균 교수(수학과)가 자연과학분야에서 유명한 Symmetry-Basel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기간은 2018년 12월 10일(월)부터다. 김태균 교수는 학술정보서비스업체 클래리베이트 앤더리틱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2016년, 2017년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대수학 분야의 수론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광운대 수학과가 평가지표 중 국제논문 피인용 부문에서 최상위의 점수를 획득한 것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18** 조충현 동해문화예술관장, 국민교육발전  
대통령표창 수상



광운대 조충현 동해문화예술관장(兼 정보과학교육원 부원장, 사진 좌측)이 교육부가 시행하는 2018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조 관장은 1984년 입사 이후 약 34년 동안 광운대에 재직하면서 평생교육 분야의 발전 및 교수 학습법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 요리중독 팀은 '미래형 스마트 주방 시스템'을 주제로 출품했으며, Smart Things Cloud를 통해 프로젝터와 카메라, 스마트 도마 및 스마트 양념통 등 각각의 모듈들을 상호 연결해 인간 친화적인 주방 환경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광운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22** 허돈 교수, 「2018년 전력시장 유공자」 산  
업부 장관 표창 수상



허돈 교수(전기공학과, 사진 좌측 두 번째)가 지난 2018년 12월 17일(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 '제13회 전력시장 워크숍' 행사에서 「2018년 전력시장 유공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허돈 교수는 민간 석탄화력 발전소인 GS 동해전력 북평화력 1·2호기의 제2신단 조성과 분양에 따른 투자비 인정 기준과 민간 LNG 발전소의 전력수급 PPA 계약 만료에 따른 용량요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수립해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3** 박태원 교수 연구팀, 전국 도시설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박태원 교수 연구팀(도시계획부동산학과)은 지난 2018년 10월 11일(목)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고 제12회 도시의 날 맞아 실시된 '의왕시 전국 도시설계학생 공모전'에서 전국 22개 대학 40여 팀의 경쟁을 뚫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품은 'SKY HIGH, 고천신업단지재생계획'으로 최근 쇠퇴 산업단지의 스마트융합형 ICT 산업단지로의 도시재생 아이디어의 우수성이 인정돼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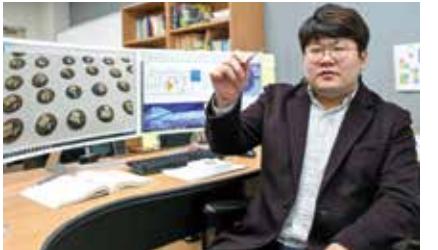
**24** 이상신 교수 연구실, 우수논문상 및 우수연  
구실상 수상



이상신 교수(전자공학과) 연구실은 지난 2018년 11월 28일(수)부터 2박 3일 동안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된 '제27회 광자기술 학술회(Photonics Conference 2018)'에서 우수논문상 및 우수연구실상을 수상했다. 박사과정 고승 학생은 '메타표면 기반의 선편광포커싱 및 빔 스티어링'에 대한 연구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광소자분과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상신 교수는 이끄는 광소자연구실(Photonics Research Lab)은 나노광소자및광센서등의 분야에서 11편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연구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광 / 운 / 성 / 과

**25** 김정현 교수 연구팀,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 개발



김정현 교수(전자융합공학과) 연구팀이 인체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하고 여러 임상 실험들을 통해 성능을 증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초소형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는 피부, 손톱 또는 작은 단추와 같은 곳에 부착해 인체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정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어 향후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2018년 12월 5일(수), 과학 및 의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사이언스 종개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JCR 1.1%)'에 온라인 게재됐다.

**26** 송영출 교수,  
자유기업원 '자유경제교육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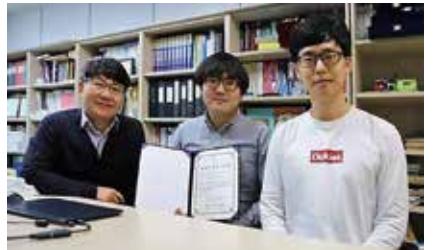
송영출 교수(경영학부, 사진 우측)가 자유기업원으로부터 '자유경제교육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교육활동을 통해 자유주의를 전파하는데 공헌한 교육자들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목) 오후 6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8 송년의 밤 : 자유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 행사에서 진행됐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독립 연구기관이다.

**27** 김승제 교수의 저서,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선정



김승제 교수(건축학과)의 저서 <의상대사 구법 건축순례 행기>가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불교 출판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출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행된 제15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도서는 1년 동안(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 및 선정됐다. 총 35개 출판사에서 101종이 접수됐으며, 심사는 진광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최철환 역경원 展 편찬부장, 김용태 동국대 교수 등이 맡았다.

**28** 나중산 석사과정 학생,  
한국센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박재영 교수(전자공학과) 연구실의 나중산 석사과정 학생(전자공학과)이 지난 2018년 11월 16일(금)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센서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 주제는 'Laser-induced graphene-based flexible biosensors with ultra-low detection limit'로, 저가형의 땀 기반 혈당 패치센서를 포함한 생체신호 측정 및 연속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웨어러블 헬스케어와 의료 디바이스 개발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29** 김영익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김영익 교수(전자공학과)가 지난 2018년 12월 13일(목)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된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방향 토론회' 행사에서 「2018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유공자」 행정안전부 장관 표장을 수상했다. 김영익 교수는 미래 대형복합재난 연구개발 협업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30** 강성률 교수의 저서,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강성률 교수의 도서 '한국 영화에 재현된 가족 그리고 사회(성균관대학교출판부)'가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도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로 선정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매년 지식기반사회 조성 등을 위해 국내 발행된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세종도서(학술부문)'를 선정한다. 이번 2018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출간된 학술도서 총 4,793종 중, 10개 분야 320종이 선정됐다. 세종도서로 선정된 320종의 책들은 공공도서관 등 전국도서관 2,600여 곳에서 만날 수 있다.

## 캠 / 퍼 / 스 / 소 / 식

**31** 광운글판, 2018년 가을 맞아 새로운 얼굴 선보여



광운대는 여성대상 강력범죄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해 대학 건물 내 여자 화장실 76개소에 경광등 76개와 비상벨 296개를 설치했다. 안심비상벨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을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안내 문구가 외부에 부착돼 있어 사전에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성폭행의 위험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응급 비상벨을 누르면 115db의 비상 사이렌과 함께 건물 외벽에 부착된 경광등이 울려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32** 「2018 하계방학 서울시정 인턴십 프로그램」 성황리 종료



학생복지처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팀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 「2018 하계방학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시 소재 13개 대학, 총 99명의 인턴이 하계방학 중 8주 동안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 출연기관 등에서 서울시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현장실습 과정이다. 광운대는 현재 까지 매년 참여 대학에 선정돼 총 8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매년 각 대학 인턴 중 우수인턴에 선발돼 전체 참여 학생 대표로 인턴십 참여 소감 발표자로 선정돼오고 있다. 금번 하계방학 역시 총 8명의 인턴이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활동을 종료했으며,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에서 근무한 박정수(미디어영상학부 4학년) 학생이 우수인턴에 선발돼 99명의 인턴을 대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33** LS산전 기술영업부 류영수 학생,  
'선배와의 만남 – 취업특강' 진



지난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6시 80주년기념관 202호에서는 '선배와의 만남 – 취업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은 2019년 1월 LS산전 기술영업부에 입사한 류영수 학생(전자공학과 13학번)의 합격 수기로 진행됐다. 류영수 학생은 "진로를 정한 후 선배들을 통해 자속적인 정보를 얻고 취업스터디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장실습지원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혁신적인 직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철저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후배들 역시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36**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예비 고1·2·3  
학부모 진로진학 콘서트 개최



지난 2018년 12월 20일(목)과 21일(금) 양일에 거쳐 광운대 80주년기념관 3층 대강당에서 고 1·2·3 중 3(예비 고1)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사정관과 함께 하는 예비 고1·2·3 학부모 진로진학 콘서트」가 열렸다. 첫 번째로 조효완 광운대 입학전형전담교수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진학 지도'를 주제로 진학특강을 진행했다. 그 다음으로 채용석 서울배명고 교사가 '학생부종합전형 자녀 진로 지도'를 주제로 진로특강을 실시했다. 이후에는 김지훈 서울여대 입학관리팀장, 백은희 광운대 입학사정관, 최현문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안성환 서울 대진고 교사, 채용석 서울 배명고 교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입학사정관·고교교사에게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 자랑스러운 광운의 얼굴

### 광운대 발전에 힘을 보탭니다

발전기금은 광운대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상의 기틀이다. 광운대에 많은 애정을 가진 동문들과 교직원들은 광운대의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기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소액 정기기부를 하고 있는 광운대 총무처 재무팀 김보영 직원과 2018년 7월, 3천만 원을 기탁한 삼통치킨 노원점 이상진(경영대학원 AMP 47기) 대표를 만나봤다.



소액기부자

**“광운대에 대한 애정으로,  
기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영 | 총무처 재무팀

**현재 광운대 교직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2017년 8월 입사하여 아직 만 2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입니다. 현재 재무팀에서 구매·계약, 급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느끼시는 광운대는 어떤가요?**

광운대는 ‘정다운 대학’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인사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광운대는 복도에서 타 부서의 직원을 만나더라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정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재무팀은 아무래도 학생들과 대면하는 일이 적습니다만, 오가다 만나는 학생들은 참 예의 바르고 건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부를 실천하는 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부를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전에 공공기관·대학 컨설팅 업무를 잠깐 경험했었습니다. 당시 구조개혁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구성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자는 의미에서 기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급여 명세서에 기부금으로 일정금액이 찍히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직장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릴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하시는 데 고민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제가 기부하는 금액은 다른 교수님, 선배 직원들에 비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 고민을 하거나 부담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적은 금액을 기부해도 되나 하는 망설임은 있었습니다.

**기부금이 광운대와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쓰이길 바라시나요.**

작은 금액이지만, 어떤 사업이든 광운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운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이전에도 교수님, 선배 직원들, 졸업생, 학생 등 광운대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학교에 애정을 갖고 많은 금액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길로 인해 지금의 광운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도 기회가 된다면, 모교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해볼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 “후학들을 위해 릴레이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삼통치킨 노원점 이상진 대표 | 광운대 경영대학원 AMP 47기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광운대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47기이십니다. 많은 대학 중 광운대 AMP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보다 먼저 광운대 경영대학원에서 AMP를 수료한 지인들이 많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교류도 활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AMP 과정도 타 대학에 비해 우수하다고 추천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AMP 과정을 수료하며 지인들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광운대에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교수님에게 광운대가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학생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부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기부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에 옮기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내가 유용하게 쓸 돈이라고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에 기부가 안 됩니다. 기부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보다 조금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후학들을 위한 마음으로 진행한 일이라 고민은 없었습니다. 기부를 결심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기부하는 것을 자체하다보면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이 광운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쓰이길 바라시나요?**

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기계공학 연구개발 시 필요한 기기나 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작게나마 도움을 받고, 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을 때 다시 학교에 환원하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듯합니다.

**광운대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운대가 AMP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AMP에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광운대에 오고 싶어 하고, 또 AMP 원우들은 후학들을 위해 발전기금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와 대학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원이 모두 발전기금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릴레이 기부문화를 정착시켰으면 합니다. 저도 앞으로 광운대에서 공부한 모든 학생들이 사회로, 세계로 뻗어나갈 때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더 불어 함께 광운과 함께

##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의미 있는 동행, 네이밍(Naming) 캠페인

광운대학교는 80여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거교적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광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 광운스퀘어 및 80주년 기념관의 각종 시설과 인프라가 후원자 여러분의 이름으로 새겨집니다.

### 네이밍 예시



### 내 이름 남기기 후원

구분	기부 금액
의자	20만 원
책상	30만 원
4인용 테이블	200만 원
6인용 테이블	300만 원
서가	300만 원
그룹 스터디룸 : 4인, 6인, 8인, 10인	1,500만 원부터
세미나실 : 10인, 12인, 20인	3,500만 원부터
강의실 : 소(30석), 중(48석), 대(200석)	1억 원부터

### 기부 약정이 더 간소해졌습니다.

PC · 모바일에서 <http://give.kw.ac.kr>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기부 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납부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휴대폰 결제, 자동이체(CMS), 카드 결제, 금여공제(교직원),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제 혜택

- 개인(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세금 감면 혜택
  - 상속재단 기부 : 고인의 유언증서,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 상속세제 면제
- 법인(주식회사, 법인 단체)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발전기금 종류 및 기타 후원방법 안내

- 발전기금 종류
  - 광운사랑 발전기금 : 광운의 발전을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학교에 위임하여 출연한 기금
  - 지정 발전기금 :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건축 · 장학 · 연구 · 기타 등)
- 현물 기부 및 기타 후원방법
  - 유형고정자산, 유기증권, 각종 법적 권리 등

### 후원문의

-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대외국제처 홍보팀 화도관
- 홍보팀 - Tel : 02-940-5505 Fax : 02-940-5016 e-mail : [kwlove@kw.ac.kr](mailto:kwlove@kw.ac.kr)

# 글로벌 ICT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는 광운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발전기금 약정명단

495억원 이상	김병효 교수 화학과 조무성 초대총장	원철상 국제통상학과 02 위드유편입	혁신전공사
10억원 이상	김진오 교수 로봇학부 하나은행	김장곤 무선통신공학과 64 윤도영 교수 화학공학과 윤영자 교육대학원 12	현대홈쇼핑 홍창표 전자공학과 74 파이터치연구원 재단법인
1억원 이상	삼성전자 해동과학문화재단	김해진 전파공학과 94 나비코 남학현 석좌교수 화학과 도서출판 북스힐	박상열 교수 법학부 손정완 화학공학과 91 이상진 경영대학원 AMP 47기 포항스틸러스
1억원 이상	오종택 구관영 응용전자공학 69	도쿄FC 디지털컴 디지털국제공조	홍일기 경영대학원 AMP 50기 김상률 경영대학 외래교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김문찬 오경호 도원원구 대표이사	김문찬 로봇게임단 로빛 류정범 AMP 19대 회장	대학원 동문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이웅주 국민은행 광운대지점	마이크로트랙 미래환경플랜 박인비 생활체육학과 08	OITA FOOTBALL CLUB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임용재 미디어솔루션 대표이사	엘지전자 이재령 전 동문회장	강원도민프로축구단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정용탁 학부모 (산업심리학과 정성훈)	대한축구협회 정동탁 학부모 (산업심리학과 정성훈)	광운꽃방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김영준 전자재료 86	김영준 전자재료 86	교육대학원 원우회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인프라넷 광운대총동문회	인프라넷 광운대총동문회	김광섭 교육대학원 1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신한은행 노원역지점	신한은행 노원역지점	김기영 前총장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엄평용 응용전자공학 77, 유진테크대표이사	엄평용 응용전자공학 77, 유진테크대표이사	김성길 교수 교육대학원 1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전인구 전기공학과 86	전인구 전기공학과 86	김용희 전자재료공학과 79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GS스포츠	손광칠 교수 정보콘텐츠학과	김현정 교육대학원 1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간승학술장학재단	송관호 대학원 동문회장	대송이엔에프(주)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강릉초당두부	수원삼성불루윙즈축구단	박구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강영현 환경대학원 07	신화빌딩 신화빌딩	박희동 직원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광운포럼 직원퇴직자모임	신상렬 교수 국제통상학부	학생복지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광주FC	축구부 학부모회	베갈타센다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김대흠 교수 화학공학과	아비스파 후쿠오카 커미트	신재호 교수 화학과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김문석 경영학과 88	인양시민프로축구단 동일스포츠	신동규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원종숙 교육대학원 12	여종섭 우리들교회 우리은행장위동지점 원종숙 교육대학원 12	썬웨이브텍 아이센스 윤종태 이상록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혜시바	한태희 화학과 94 함현미 교육대학원 13 정rix우 교수 화학과	이윤미 교수 화학과 임종태 응용전자공학과 66

장지훈
재직동문회
정달호 학부모 (정보과학교육원 정진우)
정석재 교수 경영학부
정지혜 대학원 15
조형민 전자계산기공학과 85
천장호 前총장
최원기
케이제이아이
탁진국 교수 산업심리학과
태영건설
티앤씨프로
하정인더스트리
홍규화
KB국민은행 랙스타비마점
임도영 교육대학원 12
강남이 교육대학원 13
인영온산부인과
이용대 교수
임도영
JTBC콘텐츠허브
김유곤 직원
<b>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b>
BASF
GHT워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가가와
강미영
강우람 산업심리학과 05
건원엔지니어링
계룡건설산업
고재우 교수 화학공학과
공간종합건축사
곽인찬
광운분식
권배근
권태복 교수 법학부
권한영 교수 대학원
권혁준 교육대학원 12
김경선
김남영 교수 전자공학과
김명순 교육대학원 14

김민동 교수 법학부
김상률 교수 경영학부
김석우 교육대학원 13
김성국
김용래 교수 화학과
김용환 제어계측공학과 92
천장호 前총장
최원기
케이제이아이
탁진국 교수 산업심리학과
태영건설
티앤씨프로
하정인더스트리
홍규화
KB국민은행 랙스타비마점
임도영 교육대학원 12
강남이 교육대학원 13
인영온산부인과
이용대 교수
임도영
JTBC콘텐츠허브
김유곤 직원
<b>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b>
BASF
GHT워
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가가와
강미영
강우람 산업심리학과 05
건원엔지니어링
계룡건설산업
고재우 교수 화학공학과
공간종합건축사
곽인찬
광운분식
권배근
권태복 교수 법학부
권한영 교수 대학원
권혁준 교육대학원 12
김경선
김남영 교수 전자공학과
김명순 교육대학원 14

신일제약
쌍용건설
아이스하키부동문회
임영균 교수 경영학부
장홍제 교수 화학과
야큐멘경영연구소
안창범 교수 전기공학과
애드런
에이앤유디자인
오세훈 직원
오창남 학부모
와이앤하우컨설팅
우리은행 대구혁신도시금융센터
원양건축사사무소
월계대반점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유선봉 교수 법학부
유태호 정보통신공학과 78
유희용 전자공학과 03
천성오 직원
천자산업
최상목 행정학과 84
최용훈 교수 로봇학부
최재혁
최해옥 교육대학원 09
이상경 교수 법학부
카라반캠프
탁정애 화학과 90
토문엔지니어링
티웨이항공
파밀리마트
피에이씨
학지사
한국미사회
이옥진 교수 생활체육학과
이윤상 직원
이일재 교수 영어영문학과
이정훈 교수 전기공학과
이철호 전자재료공학과 80
한신공영
한종희 교수 행정학과
한준 명예교수
한화건설
해인종합건축사사무소
핸디언즈
향림
허구철 전자공학과 80
허돈 교수 전기공학과

이혜영 교수 행정학과
이혜진 전기공학과 07
임영균 교수 경영학부
장홍제 교수 화학과
전승협 법학과 03
전자통신공학과 84학번 동기회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병태 전자공학과 68
정승기 교수 전기공학과
조재희 교수 경영학부
조진웅 전자통신공학과 82
조현주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첨사랑
채영준 화학과 92
천성오 직원
천자산업
최상목 행정학과 84
최용훈 교수 로봇학부
최재혁
최해옥 교육대학원 09
카라반캠프
탁정애 화학과 90
토문엔지니어링
티웨이항공
파밀리마트
피에이씨
학지사
한국미사회
이옥진 교수 생활체육학과
이윤상 직원
이일재 교수 영어영문학과
이정훈 교수 전기공학과
이철호 전자재료공학과 80
한신공영
한종희 교수 행정학과
한준 명예교수
한화건설
해인종합건축사사무소
핸디언즈
향림
허구철 전자공학과 80
허돈 교수 전기공학과

현대건설
현대엠코
홍광의 수학과 88
홍진웅 교수 전기공학과
희름중합건축사사무소
강인선 교육대학원 06
곽민희 화학과 99
권기성 교수 행정학과
권기청 물리학과 88
권미현 화학과 05
광운플레이어스
김화열
남성전 영어영문학과 08
다인그룹엔지니어링
본그레이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시대의 시선
신상훈
일선종합건설
장성균 무선통신학과 73
김성수 전자통신공학과 84
전지현
와이낫미디어
최철순 교수 생활체육학과
케임브리
파리다이스세가사마
김동인 직원
포스코 건설
데이드림엔터테인먼트
우미건설
박성원
위피피
무영씨엠씨건축사사무소
무영중합건축사사무소
한국방재기술
김정주 직원
오준희 직원
최윤정 직원
권순철 교수 스마트융합대학원
<b>1백만원 미만</b>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강민철
김수철 통신공학과 77
강신자 교육대학원 14
강태경
강황성
강효경 교육대학원 06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원우일동
고병업 직원
고선아 교육대학원 13
김신한 화학과 00
김애자 교육대학원 13
김연영 화학과 01
김영무 직원
김영부 응용전자공학과 71
김영조 스포츠지도자학과 01
김용문 직원
김육 화학과 99
김율희 대학원 12
김인기
김인숙
김임순 교수 환경대학원
김재미 동북아통상학부 08
김정기 화학과 94
김정숙 교육대학원 12
김정주 교육대학원 12
김도현 국제협력학부 14
김동균 환경공학과 91
김동선 교육대학원 14
김동은 교육대학원 14
김지관
김진상 행정학과 86
김정동 직원
김충현 경기공학과 78
김태규 화학과 89
김민원 교육대학원 11
김병록 화학과 93
김복기 전자공학과 81
김봉신 교육대학원 13
김상훈 교수 경영학부
김설희 직원
김석태 전자공학과 76
김설영 교육대학원 10
김성호 교수
김성호 화학과 01
김소영 화학과 98
김수철 교육대학원 13
김숙진 교육대학원 14
김숙희 교육대학원 13
김순일 교육대학원 14
김승수 교육대학원 04

김승진
김승준 대학원 08
박석 교수 생활체육학과
박선하 직원
박소연 교육대학원 14
박용우 직원
박유진 교육대학원 03
박천만 전기공학과 97
박천업 화학과 99
박철환 화학공학과 93
박필예 교육대학원 12
박하나 직원
박해진 화학과 96
박현규 전기공학과 86
박현자 교육대학원 11
반상욱 직원
반윤구
배경화 화학과 96
백주훈 교수 로봇학부
백향기 교육대학원 11
서명화 교육대학원 14
서상구 교수 경영학부
서승원 화학과 88
서영경 교육대학원 13
서영교 전자공학과 14
서영호 전자재료공학과 94
서정선 교육대학원 14
서정훈 직원
성백순 경영학과 06
소민광 직원
손기인 화학과 96
손채봉 교수 전자통신공학과
손화수 직원
송경언
송영출 교수 경영학부
송은숙 교육대학원 11
송의식
송형수 교수 수학과
신문철 직원
신유진 직원
신은정 교육대학원 12
신재현
신정희 교육대학원 13
심천보 전기공학과 86

안길환 화학과 99
양성현 교수 전자공학과
양창근 건축공학과 91
예익수 직원
오승인 직원
오준희 직원
오현주 화학과 06
온정훈 화학과 97
왕승찬 직원
우동영
원정아 교육대학원 14
유미애 학부모 (컴퓨터공학부 김승모)
유정호 교수 건축공학과
유지상 총장
유콘시스템
윤명선 교육대학원 14
윤상호 대학원 12
윤선영 화학과 05
윤선희 교육대학원 14
윤우진 화학과 92
윤운석 교수 경영학부
윤탁 상당복지정책대학원 09
이강백 전기공학과 82
이강성 교수 인제니어링부대학
이건영 교수 전기공학과
이경철 컴퓨터공학과 09
이근수 화학과 05
이대의
이동석 직원
이동의 정보제어공학과 03
이두병 화학과 91
이미영 교육대학원 13
이병현 교수 경영학부
이상종
이상혁 제어계측공학과 92
이상훈 교수 인제니어링부대학
이선정 화학과 01
이성재
이승희 직원
이영숙 교육대학원 10
이영희
이옥희 교육대학원 13
이윤석 화학과 92
이윤식 직원
이윤정 교육대학원 14
이윤희 교육대학원 14
이은주 화학과 98
이재선 화학과 93
이정준 화학과 00
이종열 직원
이종혁
이주형 화학과 01
이지영 직원
이진경 직원
이창민 화학과 95
이창석 화학과 92
이창석 직원
이현명 직원
이현순 직원
이현승 화학과 08
이혜정 화학과 96
이홍 교수 경영학부
이화정 교육대학원 11
이홍섭 경영학과 98
임시혁 경영학과 06
임의순 교육대학원 13
임종대 직원
임중식 직원
임하순
임호선 직원
임희영 교수 로봇학부
장경순 직원
장동훈
장미화 교육대학원 13
장의수 교육대학원 04
전병호 스포츠지도자학과 02
정경학 전자계산학과 91
정기봉 대학원 12
정문호 교수 로봇학부
정수미 교육대학원 14
정승칠 직원
정용준 경영학과 83
정은진 직원
정인숙 교육대학원 11
정주원 영어영문학과 02
홍순정
허정 신문방송학과 96
홍정숙
홍현표 화학과 95
황대영
황문희 교육대학원 11
KBS
김보영 직원
김윤정
김준현
노진이 직원
라태웅 경영학과 06
박정호 화학공학과 12
박현지
용철중 법학과 07
유정문
이은은(평강어린이집) 교육대학원 15
이지향 교육대학원 15
임형태
장정훈
정경진 대학원
조영록 직원
조영주
차주현 대학원 14
표정우 직원
이상주 스마트융합대학원

2009년 3월 1일 ~ 2019년 1월 31일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초연결 사회!

글로벌 멀티 유니버시티로 나아가는 광운대학교가 세상의 꿈을 초연결합니다.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